

## 2024 Vol. 4

# 주요 범죄의 실태 및 동향 자료 구축(III): 사기범죄\*

강은영 선임연구위원 | 사회학 박사, eykang@kicj.re.kr

발행일 2024년 05월 22일 발행인 하태훈 발행처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주요키워드

사기범죄, 사기범죄 유형, 사기범죄자 심리, 전기통신금융사기, 로맨스스캠

\* 관련보고서: 강은영 외 (2023.12.), 주요 범죄의 실태 및 동향 자료 구축(II): 사기범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동 연구는 국민의 삶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범죄에 대한 주기적인 조사연구를 통해 범죄에 대한 기초자료를 DB화 하여, 학계 및 일반에 공유함으로써 국책연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기획되었으며, 2023년도는 사기범죄를 대상으로 판결문조사와 설문조사를 통해 범죄 및 범죄자 특성을 분석하고, 전기통신금융사기와 로맨스스캠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실시함
- 사기범죄는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2021년에는 297,981건이 발생함(인구 10만 명당 577.0건)
- 사기범죄는 매우 다양한 유형과 수법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차용사기’, ‘매매거래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 ‘보험사기’, ‘투자사기’, ‘무전이용사기’, ‘대출사기’ 등의 순으로 발생건수가 많음
- 1차 및 2차 년도 연구에서 조사된 성폭력 및 강·절도사범과 비교할 때, 사기범죄자는 심리건강 수준은 상대적으로 양호하나 정신병질적 심리특성은 유사하거나 오히려 높은 수준임
- 보이스피싱은 2006년에 1,488건에서 2019년 37,667건까지 증가했으나 이후 감소하여 2022년에는 21,832건 발생함. 로맨스 스캠은 2022년 1월-6월까지 총 280건 발생하였으며 피해액은 37억 7천 465만 원으로 집계됨

## 01 | 연구의 필요성 및 연구 목적

### 논의의 배경

- 최근 정책개발에 있어 증거기반 연구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범죄 특성과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체계적인 데이터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음. 이에 본 연구는 살인, 강절도, 성폭력, 사기, 횡령·배임, 일반폭력(폭행, 상해, 폭처법)의 각 주요 범죄별로 6년을 주기로 범죄 실태 및 발생 특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 데이터를 DB화하여, ‘범죄와 형사사법 통계정보(CCJS)’ 시스템을 통해 학계 및 일반과 공유하고자 기획됨
- 사업 세 번째 해인 2023년에는 사기범죄를 대상으로, 첫째, 최근 발생동향과 국내·외 연구동향을 분석하고, 둘째, 판결문 조사와 수형자 대상 설문조사를 통하여 범죄 특성 및 범죄자 특성 등을 분석하였으며, 셋째, 사기범죄와 관련된 주요 쟁점이라 할 수 있는 ‘전기통신금융사기’와 ‘로맨스 스캠’의 실태와 특성에 대해 심층분석을 실시함

## 02 | 주요 연구내용

### 사기범죄 발생동향

- **사기범죄 발생동향:** 대검찰청의 『범죄분석』 자료를 재분석한 결과 최근 6년간(2016-2021) 사기범죄는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연간 발생건수는 250,600건에서 297,981건으로, 발생비는 인구 10만 명당 489.3건에서 577.0건으로 증가함

- **사기범죄 죄명:** 사기범죄의 거의 대부분이 형법상의 사기죄로 처벌되고 있고(90% 이상), 그 외 죄명으로 처벌되는 사기범죄 유형은 상대적으로 발생 건수나 구성비가 매우 낮은 수준임. 지난 6년간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편의시설부정이용, 부당이득,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범죄는 증가한 반면,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금환급에관한법을 위반 범죄는 크게 감소함
- **사기 수법:** 대표적인 사기수법은 '매매가장'과 '가짜속임'이고, '알선사기', '부동산사기', '차용사기', '모집사기' 등 범행수법의 비율은 낮은 편인데, 사기수법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기타' 유형의 수법이 40%대로 가장 많음. 지난 6년간 '가짜속임'과 '매매가장'은 대체로 증가한 반면, '차용사기'는 감소함
- **사기범죄자 특성:** 남성 사기범이 전체 사기범죄자의 75% 이상을 차지하고, 연령 면에서는 2021년 현재 20대(22.0%), 50대(21.2%), 40대(18.9%), 30대(15.2%), 60대(10.0%), 소년(8.6%), 70대 이상(1.9%)의 순임. 사기범죄자 중 본건 이전에 전과가 있는 비율은 2021년 기준 41.7%임

## 사기범죄 판결문조사 결과

- **사건 및 처분 특성:** 1) 사기범죄의 죄명은 사기(미수 포함)가 91.6%이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은 2.9%,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은 2.7% 등임. 2) 사기범죄 사건의 피고인 수는 1명인 경우가 90.8%이고 최대치는 19명임. 3) 판결문상에 나타난 재산상 피해액은 평균 약 2억 3천여만원이었고, 사기범죄 유형별로는 투자사기의 피해액이 가장 큼(약 8억 8천여만원). 3) 피고인의 판결 내용은 유기징역 58.9%, 집행유예 23.9%, 벌금 16.9% 등이고 특히, 전기통신금융사기의 경우 유기징역 비율이 83.5%로 높음. 평균 유기징역기간은 13.37개월, 평균 집행유예기간은 23.78개월, 평균 벌금액수는 3백여만원임. 4) 양형사유에 유리한 정상의 주요 내용으로는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24.7%),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거나 적음'(18.0%), '피해변상 등 피해 회복 노력'(13.2%), '피해자와 합의'(12.1%) 등 이었고 불리한 정상의 주요 내용은 '상습 반복적 범행'(16.8%), '범행 수법이 심각하거나 죄질이 불량함'(15.7%),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 부족'(15.7%),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의 심각성'(13.8%) 등이었음
- **피고인 및 범죄행위 특성:** 1) 사기범죄자의 전과자 비율은 67.5%이고, 전과자만을 대상으로 범죄유형을 살펴보면, 동종전과가 있는 경우가 이종전과가 있는 경우보다 2배 이상 많음. 2) 사건 이후 피고인의 행동 및 태도는 '반성'(32.5%), '인정 및 자백'(26.8%), '합의 이외의 피해 보상'(15.9%), '합의 시도'(14.4%), '범행 부인'(8.5%) 등의 순이었고, 범행을 전부 인정된 경우가 76.3%임. 3) 주된 범행 동기는 '빛의 청산'(32.0%), '소비·대상물의 사용'(15.7%), '직업의 일환'(13.8%), '생계비 마련'(12.9%), '사업자금 융통'(11.7%) 등의 순이었음. 3) 범죄행위의 반복성 면에서는 일회성에 그친 건은 35.2%(845건)였고 반복범행을 저지른 경우는 64.8%(1,556건)로 단일 건에 비해 약 1.5배 이상 많음. 4) 사기범죄에서 반복 범행 사건의 경우 동일한 사기 수법과 내용으로 저지른 경우(1,168건)가 다른 사기 수법과 내용으로 저지른 경우(388건)보다 3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동일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약 40%를 차지하였음
- **사기사건 범행의 구체적 특성:** 1) 사기범죄의 주요 형태별 분포를 보면 현금이나 물품을 빌려 쓰는 등의 '차용사기'가 23.3%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거짓선금 등의 '매매거래사기'(20.5%), 보이스피싱 등의 '전기통신금융사기'(9.7%), 자해/고의 충돌로 보험금유발행위 등의 '보험사기'(8.6%), 사업 등의 '투자사기'(7.2%), 무전취식 등의 '무전이용사기'(6.1%), 허위 담보/보증인 등의 '대출사기'(5.5%)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형태의 사기범죄를 저지르기 위해 차용금이나 대출금 등의 변제 약속이나 물품/대금 등의 지급 약속과 같은 '허위약속/청구'의 속임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가 분석 사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여 가장 많았음. 2) 주요 형태별 속임 방법을 구체적으로 살펴본 결과 무전이용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에서는 '사칭/가장'의 속임 방법(무전이용사기:57.8%, 전기통신금융사기:45.1%)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대출사기와 부정수급/허위신청사기에서는 '위조와 변조/조작'의 속임 방법(대출사기: 46.0%, 부정수급/허위신청사기: 44.2%)을 가장 많이 사용하였으며 그 외 사기범죄 형태에서는 '허위약속 및 청구'의 속임 방법(차용사기: 71.4%, 매매거래사기: 48.7%, 부동산사기: 53.2%, 알선사기: 57.8%, 보험사기: 63.6%, 투자사기: 62.6%, 기타사기: 48.4%)을 가장 많이 사용하였음. 3) SNS 등의 사이버공간을 이용하여 범행을 저지른 경우는 20%도 채 되지 않았음. 4) 개인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는 86.8%, 집단 및 조직 차원에서 저지른 경우는 13.2%였으나, 전기통신금융사기는 집단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96.6%로 거의 대부분이었음. 5) 범행시도의 대상면에서는 특정인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른 비율이 80.0%로 사기범죄 사건 10건 중 2건만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경우였고, 전기통신금융사기(불특정 다수 대상:97.9%)를 제외하고는 모든 형태에서 특정인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가 더 많았음. 6) 범죄행위를 통한 이익의 형태는 화폐적 이익이 전체 사건의 84.8%였고 피고인 1명이 저지른 사기범죄 사건 1건으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은 최소 900원부터 최대 약 30억원까지이고 평균 이득액은 6천여만원인 것으로 나타남. 7) 공범이 있는 경우

는 31.7%이고, 평균 공범 수는 3.84명(피고인 포함)이었는데 전기통신금융사기(98.3%)와 보험사기(69.9%), 대출사기(57.9%)는 공범이 있는 경우가 많고, 나머지 사기범죄는 단독범이 더 많았음

- 사건 피해 특성:** 1) 사기범죄 사건(2,061건)의 피해자 3,528명을 대상으로 피해자 유형을 살펴본 결과 피해자가 불특정 다수의 개인(28.2%)이거나 집단/기관인 경우(13.3%)보다는 특정 개인인 경우가 가장 많았고(58.4%) 피해 사건이 단일 건인 경우가 63.7%로 반복 피해 경험이 있는 경우보다 많았으며 반복 범행으로 인한 다수의 피해 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동일한 피고인에 의한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었음(94.8%). 2) 피해자자의 지위는 소비자/고객/회원(23.3%), 채권자(20.6%), 피싱 등의 단순피해자(12.9%), 금융기관/사업체(12.0%), 업주/종업원(10.7%), 투자자(7.4%) 등의 순임. 3) 가해자-피해자 관계는 '범행 당시 처음 본 사람(모르는 사람)'이 53.9%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고객/가입자/구매자'(14.8%), '전부터 안면 있는 관계'(7.8%), '거래처 관계자/동업/일적 관계'(6.2%), '판매(중개)자'(4.0%) 등의 순이었음. 4) 피해자의 기대된 이익의 내용은 '차용금/대출금 등 변제'(21.2%), '주문 상품 및 서비스 받음'(17.5%), '제공서비스/상품에 대한 대가'(16.8%), '주식/투자이익/투자금 반환 및 회수'(7.9%), '일방적 피해(기대된 이익 없음)'(7.5%), '이자/갯돈'(7.2%) 등의 순임. 5) 피해금 회수 여부를 살펴본 결과 피해금을 전혀 돌려받지 못한 경우가 52.4%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고 일부 돌려받은 경우는 24.4%, 모두 돌려받은 경우는 11.4%, 합의금을 받은 경우는 10.5% 등임

## 사기범죄자 설문조사 결과

- 사회인구학적 특성:** 1) 조사대상 사기범죄자는 남성이 77.1%이고 평균 연령은 43.1세이며(남성 42.5세, 여성 45.4세), 학력수준은 대학교가 44.4%로 가장 많고 고등학교 이상이 92.8%임. 결혼상태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가 전체 41.1%임. 2) 사건 당시 신체장애나 정신질환이 있다고 보고한 응답자는 17.4%임. 3) 조사대상자 중 42.9%는 월평균가구소득이 500만 원 이상이라고 답하여 비교적 높은 소득수준을 보였고, 사건 당시 직업은 전체 조사대상자 중 37.5%가 관리자, 전문가, 사무직이고, 무직은 19.9%임
- 성장환경 특성:** 1) 성장과정 주 양육자는 70.7%가 친부모이고, 14.6%는 친부모 중 한 명이라고 답함. 2) 주 양육자와의 관계는 85.6%가 긍정적으로 응답하였으며, 성장기 친구관계에 대해서도 85.2%가 긍정적으로 답함. 3) 성장기 가정형편이 보통 수준이었다고 답한 응답자는 56.4%이고, 보통보다 못사는 편이 31.5%, 잘사는 편이 32.1%로 비슷함. 4) 성장기 가정폭력 피해·목격 경험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13.9%이며 이 가운데 42.1%는 본인이 피해를 당했다고 응답함
- 청소년기 비행과 범죄력:** 1) 사기범죄자의 청소년기 비행행동 경험은 음주(51.1%), 흡연(50.6%), 무단결석(38.0%), 성관계(28.7%), 가출(28.1%), 심한 욕설과 폭언(25.5%)의 순임. 2) 조사대상자의 28.3%가 청소년기 비행이나 범죄 단속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고, 전과가 있는 비율은 42.9%이며, 동종전과가 73.5%, 이종전과는 50.8%임. 3) 최초 사기범행 나이는 평균 35.9세이고, 최초 법적 처분 나이는 평균 34.5세임
- 사기범죄자 심리특성:** 1) 전체 조사참여자의 심리건강 수준을 보여주는 자아존중감은 평균 3.87점(5점 척도), 주관적 안녕감은 평균 4.90점(7점 척도)로 '보통' 이상의 수준을 보임. 심리건강의 부정적 요인을 측정하는 우울은 평균 1.90점(5점 척도), 음주문제는 평균 1.59점(5점 척도)으로 '그렇지 않다'(2점) 이하의 수준을 보임. 정신병질(psychopathy)의 특성을 측정하는 총동성은 평균 2.41점(5점 척도), 속임수 및 피상적 매력은 평균 2.33점(5점 척도), 조망수용의 결여는 평균 2.25점(5점 척도), 공감능력의 결여는 평균 2.43점(5점 척도)으로 모두 '보통' 이하의 수준으로 보고됨. 자기통제는 평균 3.63점(5점 척도)로 '보통' 이상의 자기통제 수준으로 보고됨. 2) 남성 사기범죄자는 자아존중감이 낮을수록, 자기통제 수준이 낮을수록, 주관적 안녕감이 낮을수록, 우울이 높을수록, 음주문제가 많을수록, 총동성, 속임수 및 피상적 매력, 조망수용의 결여 수준이 높을수록 사기전과횟수가 많음. 여성 사기범죄자는 자기통제 수준이 낮을수록, 우울이 높을수록, 음주문제가 많을수록, 속임수 및 피상적 매력, 조망수용의 결여 수준이 높을수록 사기전과 횟수가 많았음. 3) 본 사업의 1차 및 2차년도 연구에서 조사된 성폭력 및 강·절도사범 데이터와 비교해 보면, 사기사범은 심리건강 수준은 타 범주에 비해 양호하나 정신병질 관련 특성은 타 범주와 유사하거나 높은 수준으로 나타남
- 사기범죄와 주요 변인과의 관계:** 1) 남성 사기범죄자는 학력수준이 낮을수록, 신체장애나 정신질환이 있는 경우, 월평균가구소득이 낮을수록 그리고 폭력비행이나 재산비행 경험이 많을수록 사기전과 횟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2) 여성 사기범죄자는 사회인구학적 특성, 성장환경 및 청소년기 비행, 범죄력 중 사기전과 횟수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난 변인은 없음

## 사기범죄 관련 최근 쟁점: 전기통신금융사기와 로맨스 스캠

-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유형과 특성:** 1) 전기통신금융사기는 첫째, 기망수법에 따라 기관사칭형(범죄연루형), 대출사기형, 지인사칭형, 납치빙자형, 둘째, 기술적 방식에 따라 피싱, 파밍, 스미싱, 메모리 해킹, 몸캠피싱, 메신저 이용사기로 구분됨. 2) 전기통신금융사기는 조직범죄성, 국제범죄성, 범죄의 지능화·첨단화, 정보의 비대칭성 이용 등의 특성을 가짐
- **보이스피싱 현황:** 1) 보이스피싱은 2006년에 1,488건에서 2019년 37,667건까지 증가했으나 이후 감소하여 2022년에는 21,832건 발생함. 피해액은 2006년 106억 원, 2021년 7,744억 원, 2022년에는 5,438억 원이며, 2006-2022년 총 누적 피해금액은 약 4조 4,119억 원임. 2) 2020년에는 기관사칭형이 25%, 대출사기형이 75%를 차지함. 최근 금융기관에서 대출관련 보이스피싱 대책과 예방교육 등을 강화하자, 범죄조직에서 대출사기형을 피하고 초창기의 기관사칭형으로 전이되는 풍선효과가 나타남. 3) 대포통장에 대한 수사기관의 집중단속이 시작되고 계좌 지급정지, 30분 지연인출제도 등 규제가 강화되자 2019년 6월을 기점으로 계좌이체형 발생이 감소추세로 전환하여 대면편취형이 증가함. 3) 피해자 성별은 2020-2022년 기준 남성이 58.4%, 여성이 41.6%이고, 연령 면에서는 고령층보다는 40, 50대가 가장 많고 특히 2022년에는 20대가 가장 많음
- **보이스피싱 및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대응:** 1) 보이스피싱 대응기관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검찰청 조직범죄과, 금융위원회, 통신, 금융, 수사 등 대응체계의 분절화·파편화를 극복하기 위해, 신고접수부터 통신번호와 금융계좌 차단 조치와 검거, 피해자지원까지 종합적 대응이 가능한 거버넌스 체계의 구축이 필요함. 2) 보이스피싱은 새로운 수법으로 계속 진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피해 예방과 발생 감축을 위한 신속한 범행 수단별 차단과 더불어 국제적인 자금세탁까지 발본색원하기 위한 국제공조, 정보공유, 법제 개선 등의 종합적, 입체적, 유기적 대응이 필요함. 3) 국무총리훈령에 따라 2023년 10월 4일부터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 운영이 시작되었는데, 향후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수단 차단체계의 고도화, 금융기관 등과의 협업 강화 및 다각적인 피해예방활동 등이 필요함
- **로맨스 스캠 사례연구:** 경찰청은 별도로 로맨스 스캠 관련 통계를 관리하거나 발표하고 있지는 않으나, 2022년 1월-6월 까지 총 280건으로 피해액은 37억 7천 465만 원으로 집계됨. 10개의 환전형 로맨스 스캠 사례분석 자료를 스크립트화하여 분석한 결과 1) 일대일 대화방으로 유인 및 접근 시 유혹의 종류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소통이 시작되어 피해자가 시간적 여유 부족 및 관심 부족으로 소극적 대응을 하는 경우, 자금 유혹으로 유인하고, 적극적 대응을 하는 경우 달콤한 로맨스 유혹으로 이어지는 패턴을 보임. 2) 두 가지 유혹 전략 모두에서 더 이상 자금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통 빈도가 현저히 줄어들며 사기는 종료되는 경향이 있음. 3) 로맨스 유혹의 전략에서는 추가 피해 단계에서 매혹적인 그루밍 강화 또는 죄책감(책임전가)을 들게 하여 추가 피해가 일어나게 시도하고, 자금 유혹의 전략에서는 자금사기 피해가 시작된 이후에는 피해 금액을 만회해야 한다는 그루밍이 강화되면서 추가피해가 발생함. 4) 환전사기형 로맨스 스캠 사례에서 주목할 점은 전체 사례의 50퍼센트에서 사기꾼과의 소통이 종료된 후에도 대답이 없는 대화방에 독백이 이어지는 등 피해자의 금전적·심리적 피해가 복구되지 않고, 미련 또는 한 가닥의 희망을 놓치지 싫어서 어떻게든 소통을 복구하려는 시도로서 금전적 피해 이후에도 심리적 피해가 다른 범죄에 비해 크게 작용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

### 03 | 정책제언

- 사기범죄 관련 실증연구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부족한 상황이고 보험사기 등의 특정 유형의 사기범죄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사기범죄 유형과 변화 양상에 대한 심층적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야 함
- 사회인구학적·심리적 취약성을 지닌 사기범죄자의 재범방지를 위한 교정처우 및 재사회화 정책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음
- 사이버금융사기나 로맨스 스캠 등 사기범죄에 대한 체계적인 분류기준의 정립이 필요하며, 범죄 스크립트와 시나리오 등을 활용한 사기범죄 예방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상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해서 개념의 확대 정립이 필요함